

자신을 믿으라.

Believe in yourself and all that you are. Know that there is something inside you greater than any obstacle. (Christian D. Larson)

자신과 자신의 모든 것을 믿으라. 당신의 내면에는 어떤 장애보다도 더 위대한 어떤 것이 있다는 것을 알라.

(크리스찬 D. 라르슨)

2013년 9월 8일 저녁 KBS 1TV의 '강연 100°C'라는 프로그램을 시청하였습니다. 그중에 '나를 사랑하고 응원하라'는 주제로 강연한 황선만 님의 이야기가 저를 사로잡더군요. 아마도 그의 '나에게 주는 표창장'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의 강연에 따르면, 자신이 어려움에 닥치니 아무도 자신을 위로하거나 거들떠보는 사람이 없었고, 자신을 기다리는 것은 빛더미였다고 합니다. 눈앞이 캄캄하였으나 문득 자신의 어릴 적 꿈이 생각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격려하면서 꿈을 이루기 위한 준비를 하기로 합니다. 자신이 잘했던 일들과 장래 계획을 중심으로 자신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자기에게 주는 표창장의 문구를 만들고 스스로 표창패를 제작하여 자신에게 수여합니다. 그러자 자

신감이 생기기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가정형편 때문에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공무원이 되면서 잊고 있던 작가의 꿈을 키우기 위해 꾸준한 독서와 습작을 하였고, 그 결과 13년 만에 빛을 모두 청산하고 9권의 책을 출간한 작가로 거듭났다는 내용의 강연이었습니다.

절망의 순간에 자존감을 느끼고 자신을 격려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그 일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자신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이 자신을 믿지 않고 자신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누가 우리를 믿어주고 사랑해주겠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위대한 그 무엇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고난이 닦쳤을 때야말로 태어날 때부터 이미 가지고 있는 자신의 내면에 있는 자신만의 위대한 그 무엇이 빛을 발할 때입니다.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은 새로운 출발을 위한 디딤돌입니다. 우리 모두 바로 지금 자신의 장점들을 찾아보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